

# 유럽의 정보통신 시장(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동향( I )

조사부

## 1. 서론

1995년 ICT 시장의 성장은 1994년에 이룩한 바탕 위에 추가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러한 강한 회복세는 199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1995년의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네트워크 시장의 성장이었다.

통신과 전자교역의 매개체로서의 인터넷의 확대와 함께 부상한 새로운 능력과 경쟁법칙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와 흥분이 형성되었다. 1995년 인터넷의 활용은 폭발적인 증가를 시작하였다. 인터넷은 엄청난 도약을 함으로써 정보기술을 단지 개인적으로 활용하던 구시대와 모든 이들이 정보기술을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사용할 새로운 시대로 구별시켜준다.

ICT 사용자와 네트워크를 기초로한 컴퓨팅의 공급업자간의 정열은 뜨거워서 사무적, 사회적 생활이 극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사무환경과 소비자 환경 모두에서의 ICT 수요는 네트워크에 위치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증가에 의해 창조된다. 네트워크는 원거리와 문화 모두를 가까운 거리에 오게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직업간의 방대하고 복합적인 정보의 빠른 교환을 가능케 해준다. 작업패턴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발달되어 “방랑자들(nomads)”와 네트워크의 재택근무자들을 출현케 할 것이다.

ICT공급업자들에게는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이 새로운 경쟁법칙을 발생시킨다. 기업간의 결합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혁신시키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

통신회사들과 정보기술 공급업자들은 서로간에 결합할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멀티미디어 내용공급업자, 수많은 “뉴 미디어”기업들과도 제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합은 최첨단의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의 스펙트럼을 가정과 사무실에 가져다 준다.

새로운 일자리와 신기술이 부상

하여 기존의 통신, 정보기술업계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부분적으로 보상해준다.

통신 서비스 및 인프라 시설 자유화의 개혁이 EU(European Union)의 회원국들이 정한 타임테이블과 그들이 공헌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EC(European Commission)가 후원하는 논리는 국경을 없애는 기술적 발전과 경쟁증진의 경제적 강제성을 모두를 수반한다. 이 조치는 그들의 경제 활동을 세계화하려고 시도하는 주요 유럽국가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 2. IT(Information Technology)와 ICT 시장규모

서유럽의 ICT시장은 1995년 304억 ECU에 달했다. 핵심 정보기술(사무장비, EDP장비, 소프트웨어, 전문적 서비스, 프로세싱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하드웨어 유지/보수)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142억 ECU를 차지했고

주) 본고는 IDC와 EITO테스크 포스팀이 만든 정보시장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나머지 ICT장비 및 서비스가 162억 ECU에 달했다.

서유럽 ICT시장의 성장은 1995년 8.1%로 5년 동안의 최고치에 달했다. IT부분만은 7.5% 통신부분은 8.7% 성장하였다.

전세계 ICT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율은 안정된 유럽의 경제와 유럽 통화에 대한 호의적인 환율 움직임 덕에 1994년과 비슷했다. 유럽(동유럽 포함)은 1995년 전세계의 ICT 소비의 32%를 차지하였다. IT소비만으로는 전세계의 30.4%에 달했다.

미국 ICT시장의 지속적 성장은 1995년 전세계의 ICT시장의 큰 특징이다. 1995년 미국의 ICT시장은 7.3% 증가하였고, IT분야는 거의 제자리에 머무른 통신분야와 대조를 이루었다. 1995년, 일본의 ICT시장은 4.8%의 완만하지만 긍정적인 성장을 하였다.

1995년 네마리 호랑이(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ICT시장은 IT분야에서 29.7%, 통신분야에서 5.8%의 빠른 성장을 보여 주었다.

### 3. 서유럽의 IT 및 ICT시장과 현재의 경제상황

지난 2년간 서유럽의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서유럽의 경제는 원동력이 생겨서 관리가 더욱 용이한 팽창률을 회복하게 되었다. 1996년 서유럽과 미국의 성장은 비슷할 것이다. 서유럽의

경제활동이 90년대 초반에 돋보이지는 않았다면, 일본은 20년 이상의 예외적인 팽창이후 1992년부터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1996년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나 확신할 정도는 아니다. 완만한 회복세는 빈약한 일본의 수출에 도움받지 아니한다. 1995년 봄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절상에 이어서 일본의 수출은 1995년 봄보다 현재 15% 더 비싸다.

유럽의 경제성장에 혜택을 주는 것은

- 낮은 인플레이션
- 투자 증가
- 소비자 및 업계 확신지수 고조
- 서유럽 기업 등의 이익마진 확대 등이다.

그러나 경제회복의 강도는 서유럽내의 지역과 국가들 사이에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마스트리트 조약의 이행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정부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정책보다는 금융적으로 신중한 정책을 강요당하고 있다. 마스트리트 조약은 각국 정부부채의 통제, 낮은 장기 이자율,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된 통화 등을 요구한다. 신중치 못한 정책의 반향은 거의 즉시 이러한 변수에 반영된다.

기업들의 이익마진 확대는 공장, 기계 및 IT투자의 강한 성장에 반영되고 있다. 개인 주재자 고정 총 자본형성(gross privatenon-residential fixed capital formation)의 강한 해외수요는 독일(그리고 프랑스)의 경제가 1995

년 봄에 발생한 통화변동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투자 역시 대부분의 유럽경제의 낮은 이자율로 인해 고무되었다. 환율이 통제를 벗어남에 따라 1995년 3월과 6월사이의 투자율은 크게 변동하였다. 그러나 1995년 2/4분기에는 1994년 전체에 걸친 낮은 투자율처럼 안정되게 보인다.

EC(European Commission)의 경제확신지수는 정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하락의 시발보다는 단기간의 균열로 보인다. 제조업 확신지수는 특히 강한 반면, 소비자 및 소매업자 지수는 고용현장의 현재의 큰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실직률은 하락하기 보다는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은 통제되고 있다. 1995년 주요 몇개 국중에서 이탈리아가 5%를 넘었다. 독일, 프랑스 및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1995년 2~3년 포인트 증가했다.

스칸디나비아 경제에서는 스웨덴이 가장 큰 관심을 야기하고 있다. 스웨덴은 1984년 서유럽에서 마지막으로 평균이상의 실질 GDP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투자는 내수수요보다는 강한 수출시장으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강한 성장중의 하나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비록 강한 실질성장을 경험했지만, 1990년초의 큰 침체의 영향

으로 소강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전체경제 뿐만 아니라 IT분야에서 번성하고 있다.

다른 국가로는 아일랜드를 꼽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강한 실질 GDP성장(1995년 6.5%)에도 불구하고 IT투자는 GDP성장에 비해 부진하다. 이런 실망적인 구도는 아일랜드의 상대적인 IT분야의 후진성과 주요 IT공장을 가진 많은 수의 기업의 부재 등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1) IT추세

유럽의 IT시장은 경제회복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 90년대 초반 부진했던 유럽시장의 성장은 1994년 시장확대의 중요한 역할을 시작한 기술개발 요인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북유럽 대부분 국가의 강한 경제성장은 스칸디나비아, 영국, 아일랜드, 독일 및 네덜란드의 IT시장의 고성장에 반영된다.

하지만, 실질 GDP성장률과 IT시장의 강세사이에 직접적이고 분명한 상관관계는 없다. 1995년 스웨덴과 독일은 모두 평균이하의 실질 GDP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IT시장에서는 예외적인 팽창을 보여주었다.

#### ① 독일 : 다시 IT투자로

독일의 IT시장은 기업들이 경기침체에 연기했던 투자를 시작함으로써 수요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하드웨어 시장은 1995년 두자리수 성장률을 계속한 PC판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는 더 빠른 칩 기초(chip-based)기계 채택으로의 전환과 구매자들이 고품질의 PC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판매가격 전쟁 등이다. 가격 하락과 기술진보로 인해 고품질 PC는 점차 홈 시장의 구매자들을 끈다.

클라이언트/서버 응용제품의 판매는 팹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의 강한 성장에 기여하였다. 관련 디바이스와 특정 수직 시장용 패키지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였다. 전문적 서비스에서의 성장도 유럽 평균치 이상이었다.

1995년 독일의 전체 IT시장은 7.4% 성장하였고, 1996년은 7.1% 성장이 예견된다.

#### ② 프랑스 : 회복을 향해

프랑스의 IT시장은 1995년 회복세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5.4%의 완만한 성장에 그쳤으며 3년 연속 유럽에서 가장 약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비록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6.4%의 성장이 예상되어 1996년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강한 PC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IT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강한 홈 PC시장을 활용하지 못했다. 소비자 시장의 성장이 1995년 말에서야 시작되었다. 1996년은 큰 낙관을 한다.

클라이언트/서버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 조직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정보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많은 대기업들이 그들이 조직적 체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전문적 서비스 시장에서는 많은 조직에서 더욱 폐키지된 소프트웨어 친화 환경으로의 조정때문에 부진했다. 정부 조달의 전반적인 하락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낙관적인 한 요소는, 1996년과 그 이후의 두자리 숫자의 성장에 대해 비교적 전진적으로 생각하는 프랑스의 태도이다.

#### ③ 영국 : 시장 원동력

영국의 IT시장은 1995년 연초의 기대보다 훨씬 나은 8.9%의 성장으로 전체 유럽시장을 지원했다. 1996년은 유럽의 평균치에 가까운 7.4%의 완만한 성장이 기대된다.

영국의 강한 성장의 결과로, 영국과 프랑스의 IT시장의 갭이 프랑스가 부진한 성장을 하는 동안 영국이 IT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좁혀졌다.

지난 3년동안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IT분야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다. 하드웨어 분야는 주로 PC와 프린터의 판매가 주도했다.

영국 IT소프트웨어와 서비스분야에서 가장 크게 계속 떠오르는 별은 아웃소싱(Outsourcing)이다. 영국은 아웃소싱의 개념을 가슴 속에 새기는 선진 유럽국가중의 한 나라이다.

현재, 전체 전문적 서비스 시장

에서 아직 비교적 작은 부분이나, 향후 몇년간에 고성장률이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정부내 각 부서의 비용절감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이룩하기 위해 “시장 시험(market testing)”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 성장의 많은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 ④ 이탈리아 : 기술 도입에서 회복 진행중

1994년 완만한 2.1% 성장에 이어 1995년 이탈리아의 IT시장은 생동감을 회복했다. IT시장은 2배 이상인 5%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성장률은 전체 유럽 평균성장률보다는 약간 낮다. 1996년은 6.5%, 1997년은 7.4%로 1995년보다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된다. 유럽 평균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함으로써 이탈리아의 IT시장은 향후 2년에 걸쳐 자국의 신기술 도입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PC시장에서는 성장세가 특히 강했다. 이것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GDP나 투자 같은 주요 요인들이 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통화시장에서 리라(Lira)화의 안정 또한 1995년 후반부 이탈리아의 PC시장에 도움을 주었다. 이탈리아는 현재 최고급의 기계에 대한 투자에 착수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북유럽국가들과는 상당히 쳐져있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분야에서는 IT컨설팅과 아웃소싱(outsourcing)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과 노르딕 국가의 추

세를 따라서, 이탈리아의 서비스 시장은 국내의 IT소비에서 국외의 공급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 ⑤ 스페인 : 오랫동안 연기된 회복

3년 연속의 경기침체와 경기후퇴 후에(IT시장 성장률 1992년 -1.2%, 1993년 -5.2%, 1994년 1.2% 스페인의 IT시장은 1995년 7.4%성장의 안정세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것은 스페인 IT시장의 회복이, 스페인 경제의 회복처럼, 대부분의 유럽국가보다 18개월이상 뒤쳐져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유럽 전체평균 이상의 성장(8.7%)을 하게될 내년에 만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경기침체에서 회복하고 있다. 스페인은 1995년 EU의 구조 및 농업기금 3.8억 ECU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3%의 실질 GDP성장으로 유럽의 평균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의 회복과 1992/93 기업 재구조화에 이은 스페인 기업의 훨씬 건전한 재무구조로 인한 투자는 경제성장을 촉발하고 있다.

스페인의 인구가 4,000여만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스페인은 강력한 IT시장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큰 IT시장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인구 1,500만명), 스위스(700만명), 스웨덴(900만명)의 IT시장의 규모가 스페인 시장의 규모보다 크다.

1994년, PC판매는 하락했지

만, 1995년 거의 두자리 숫자의 성장을 함으로써 1996년과 1997년의 보다 본질적인 성장을 기대케 해준다. 고성능 PC가격의 하락은 전환점을 가져다 준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은 1995년과 1996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문적 서비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 것이다.

#### ⑥ 그외의 다른 국가들

1995년 핀란드와 스웨덴이 두자리 성장을 함으로써 노르딕의 IT시장은 전체적으로 유럽보다 더 큰 성장을 지속하였다. PC와 LAN하드웨어 시장이 특히 강세였다.

네덜란드의 IT시장은 1995년 아주 큰 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대로 벨기에의 IT시장은 침체하였다. 스위스 시장은 1995년 평균 성장을 하였고 1996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오스트리아 시장은 만회를 계속하여 1995년 유럽평균보다 더 큰 성장을 하였고 그 성장세가 199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의 IT시장은 1995년 눈부시지는 않지만 적절한 성장을 하였고 1996년에도 그 성장세가 기대된다.

남부유럽에서는 그리스 IT시장의 성장이 두자리 숫자였다.

포르투갈 시장은 유럽평균보다 약간 아래였고 1996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의 기금 프로그램이 포르투갈의 전문적 서비스 시장을 고무시켜준다.

(6號에서 계속)